

## 신디셔먼(Cindy Sherman) 사진작품에 관한 연구 A Study on 'Cindy Sherman' Photographic Work

권성윤\*, 양종훈\*\*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학과 석사과정\*

상명대학교 디지털이미지학과 교수\*\*

KWON SUNG YOON\*, YANG JONG HOON \*\*

Sangmyung University Dept, Digital Image Master Course\*,

Sangmyung University Dept, Digital Image Professor \*\*

### 1. 작품 이미지



### 2. 작품 설명

신디셔먼(Cindy Sherman)은 현존하는 여성사진가로 1954년 미국 뉴저지주 글렌리지에서 출생했다. 위의 사진은 1977년 〈무제 사진 스틸〉시리즈 중 하나이다. 1950-1960년대 미국영화에 나오는 여배우들을 보고 직접 본인이 변장한 작품이 다수이다. 영화, 텔레비전, 잡지 등의 대중문화에서 아이디어를 얻어서 영화의 한 장면을 비슷하게 묘사하는 것으로 자신을 소피아로렌, 마릴린 먼로, 모니카 빗티, 코니 프란시스와 같은 영화속

배우들로 변장하고 직접 작품을 만들면서 재연배우 역할까지 한다.

〈무제 영화 스틸〉시리즈는 85점 이상의 사진이 제작되었지만 이 회고전을 통해서 40점을 선보였다. 셔먼이 직접 변장하여 스틸 사진을 통해 자신의 모습을 드러낸 사진이었고 새롭게 변화하는 모습을 사진을 통해 보여주고 있다는 점이다. 이사진들을 들여다보면 영화의 한 장면을 50년대 영화사진의 분위기를 나타내기도 했다.

셔먼의 초기작품 《무제 영화 스틸 (Untitled Film Stills)》은 85점 이상의 사진이 제작되었지만 이 회 신디셔먼의 작품은 주제별로 약 5분야로 나누어지는데, 사진은 초창기 무제사진 스틸시리즈이다.

### 3. 작품평론

신디셔먼의 작품에서 주된 주제는 ‘여성’과 ‘몸’이다. 신체는 셔먼 작품의 근본주제라 할수 있는데, 그녀가 전달하고자 하는 메시지는 여성의 진정한 자아확립과 주체회복이다.<sup>1)</sup>

신디셔먼은 여배우들을 표방한 것 뿐만 아니라 거장들의 그림속 인물을 재창조하는 과정에서 다양한 메이크업을 활용하여 섭식장애등 망가진 신체를 표현하는데도 과감했다.

그녀의 사진은 카메라 앞에 나와서 보여주는 포스트모더니즘적 주체를 볼 수 있다. 사진가의 시각에서 스스로 모델이 되어 시선의 주체와 객체를 모두 담당하였다.

또한 현대사회에서 여성들이 어떻게 묘사되고 인식되고 있는 지를 표현하기 위해, 대중문화를 참고해 여성을 바라보는 사회적 시각을 작품에 표현하였다는 점이 신선하게 보여졌다.

그녀는 무제사진 스틸시리즈에 관해 “역할 연기를 한

1) 네이버 블로그(Naver Blog), '2018년 1월 나미브추천 사진집'<http://naingeun.blog.me/221180284976>, 2018. 1. 8.

위장일 뿐 아니라, 이미지들을 섹시한 것으로 착각하며 볼 거만한 남성관람자들에 대한 경멸”이라고 직접 말했다 또한 신디셔먼은 “나는 고귀한 미술 작품을 만들려하지 않았다. 나는 작품이 상품처럼 보이는 것도 원하지 않았다.”<sup>2)</sup>라고 했다.

그녀는 무제영화스틸시리즈나 패션사진에서는 자신을 변장하여 나타냈지만, 또한 남성으로 변신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하였다. 초기의 매스미디어의 영향에서 대중문화로, 대중문화에서 거리문화까지 다양하게 영향을 받은 작품을 보여주고 있다.

또한 그녀가 추구한 메시지는 남성 작가들이 그린 남성들의 모습이 아닌, 여성 작가가 그린 여성의 모습으로 표현한다는 점이다. 세상에 보이고 싶은 여성상을 그리는 것이 아니라, 고정 관념으로 인해 묻어두었던 아름다워보이지 않는 여성상까지 나타내고자 하였던 것이다.

---

2) 501 Great Artists:A Comprehensive Guide to the Giants of the Art World, Stephen Pading, 마로니에 북스,20 August 2009, p583